

# 주민에게 불어온 천사의 날개 짓

### 전주시 노송동 마을재건 공동체 '천사길사람들', 수익사업 바탕 환경개선·후원 지속

'천사' 전주에 있다. 다른 아닌 '천사의 마을' 노송동이다.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은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70%가까이에 달하고 거주하는 연령층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구도심이다. 이런 마을에 지난 2000년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 온 이후 마을은 점차 천사를 닮기 시작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연말이 되면 노송동 주민센터에 고액을 기부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후원자이다. 2000년부터 17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찾아온 천사의 기부액은 5억원에 육박하고 후원을 받은 세대만도

4,000여 가구에 이른다. 천사의 따뜻한 온정은 훈훈하게 마을 사람들을 데우기 충분했고, 이덕고 마을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전주시는 2011 국토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에 참여했고, 이에 노송동 주민들은 하나가 되어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텃밭가꾸기 등 환경개선사업 등을 시작으로 천사마을을 테마로 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오던 주민들은 자치와 경제적 자립적이 바탕이 된 마을 자립을 고민하기 시작, 2015년 전주형 공동체 사업인 온누리공동체 '천사길 사람들'을 구성했다.

'천사길 사람들'은 이후 노송동 천사의 거리를 알리고 일자리와 수익 창출 사업을 바탕으로 마을 환경개선과 소외계층 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주민참여형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건물과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사계절 천사화단'을 만들어 마을 분위기를 밝게 바꾸고 마을 공동체 공방을 만들어 주민 소통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천연염색 제품 판매를 위한 주민자립형 협동조합을 창립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천사표 이야기 밥상' 등을 기부했다.

천사길 사람들은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를 인정받아 2017년 공동체 한마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집 담장부터 페인트를 칠하고 이웃집과 마음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마을 공방으로 하나를 모으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여 마을을 함께 끌어가고 있다. 얼굴 천사의 날개 짓은 마을의 환경과 주민의 변화를 가져와 경제적 자립까지 이어지는 토네이도가 되어 천사의 뜻에 보답했고, 노송동 마을 재생은 도시재생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 문경위, 팔복예술공장·지식산업센터 부지 방문 점검 복합위,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엄마의 밥상 업체 방문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이기동 의원)가 지난 1일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팔복예술공장과 전주첨단벤처단지 현장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2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창작스튜디오와 공동 작업실, 전시장, 예술교육실을 둘러보며 개관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또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내에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과 첨단벤처단지 내 입주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전 입주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양영환 의원)도 같은 날 종합리사이클링타운과 엄마의 밥상 급식제공업체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가동 이 시작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을 방문하여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과 재활용품 선별 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등 주요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의원들은 음식물류 및 재활용폐기물의 일일 평균 처리량과 현장 상황을 듣고 폐기를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또 리사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음폐수 악취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저소득 계층 등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엄마의 밥상 급식제공업체인 전북외식산업을 방문하여 도시락 배달 운영 현황과 조리시설 청결상태 등을 살펴보았다. /김민근 기자

## 송천동 천마산로 자투리땅 시민위한 가로 쌈지공원 조성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만 가득했던 전주시 송천동 옛 35사단 진입도로 인근 자투리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휴식·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도시 전체를 녹지축으로 연결하고 도심 곳곳에 생태 숲을 만드는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총 1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상습 불법 주·정차 공간으로 이용돼 온 송천동 천마산로 내 공유지를 활용해 쌈지공원을 조성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이곳에 사계절 푸르른 선주목과 꽃복숭아, 영산홍 등 13종, 9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도심 속 녹색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 땀퐁이와자라 테이블, 캐비닛의자, 돌담, 야간 조명 등, 토기화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색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그간 송천동 천마산로의 해당 사업 부지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보행자를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도심 공한지와 자투리땅, 학교 공터, 아파트 담장 등을 도심 동네숲과 원터, 학교숲, 아파트 열린숲 등으로 가꾸는 생태도시 가꾸기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온통 숲 프로젝트는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생태'를 복원하고, 도심열섬현상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차량으로만 가득했던 전주시 송천동 옛 35사단 진입도로 인근 자투리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휴식·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 '약촌오거리 살인' 피고인 항소심 징역 15년

### 역물하게 옥살이 한 최모씨 무죄 선고 후 기소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 판사)는 지난 1일 강도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에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김씨가 사건 용의자로 지목

됐을 때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 물증이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풀려났다. 이후 역물한 누명 쓰고 10년간 옥살이 한 최모(34)씨가 출소 후 2013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해 기소했다. 김씨는 "2003년 진술한 내용은 과시할 목적으로 꾸며낸 것"이라며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우한 가정 환경 탓에 경제적 곤궁으로 강도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범행 당시 19세의 소년이었을 사리분별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 아내와 불륜 의심 지인 폭행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0시 10분께 전주 시내에 위치한 한 사무실 앞에서 지인(B)씨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다가 흉기를 빼앗기자 무력으로 복부를 가격하고 넘어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7일여

동안 B씨에게 욕설 등이 섞인 문자를 총 26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불륜관계인 것을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일본에 상해가 중하지 않고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 전주시보건소,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에이즈 예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1일 객사 일대에서 거리를 지나는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30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캠페인을 전개했다.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편견·차별

해소'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홍보 캠페인은 시민의 자발적인 에이즈 검진을 유도하고,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200) 또는 에이즈상담 지원센터(1599-8105)로 문의.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